

소설가 김진명 “고구려 드라마화 기대…조인성 어때요?”

‘고구려’, 6권 후 5년 만에 7권 출간

천억원 들여 대하사극…“기대 크다”

“고구려 7권이 너무 오랜만에 나왔죠? 정말 어렵고 힘들고 오래 걸렸습니다. 그만큼 만족스럽고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8권부터는 이제 페도난마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김진명 작가가 ‘고구려’ 7권으로 돌아왔다. 지난 2016년 6권 이후 5년 만이다.

최근 서울 중구 뉴시스 사옥에서 만난 김 작가는 “고구려 7권이 오래 걸린 이유부터 설명해야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사실 책을 빨리 쓰는 편이다. 머리가 아닌 손으로 쓰는 데 2, 3달 만에 쓰기도 한다”며 “하지만 고구려는 스스로 한 다짐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우리나라 우수 작가들이 삼국지에 대해서는 많이 썼는데 그때와 동시대인 고구려에 대해서는 소설이 없었다. 중국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들여 교묘하고 치밀하게 우리 역사에 침투해 오는데 우리는 삼국지어나 빠져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는 “삼국지보다 재미나게 쓰겠다고 결심했다. 우리 역사가 잃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 앞서 다뤄 일깨움 삼국지보다 재미있게 쓰는 것”이라며 “급방 끝낼 수도 있었지만

깊은 맛을 위해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특히 7권은 ‘난산’이었다고 표현했다. “1~3권은 재미있게 지나가지만 4~6권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공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부도 많이 했고 어려웠다. 힘은 들었지만 7권을 난산하고 나니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8~10권은 모두가 기대하는 공개 토대왕 이야기다. 그는 “이제 8~10권은 페도난마 식으로 사원시원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가장 쓰기 어려웠던 왕으로는 ‘소수림왕’ 구부를 꼽았다. “구부는, 어릴 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천재 왕이다. 완벽한 천재 왕의 모습을 그려야 하는데 그만큼 고민이 많았고 어려웠다.”

애착이 가는 왕으로는 구부의 아버지이자 백성의 왕이었던 ‘고국원왕’ 사유를 들었다. “아픔이 많았던, 그만큼 애정이 가는 왕이다.”

2023년 완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는 “8~10권은 일본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며 “우리 역사상 일본을 완전히 꺾은 공개토대왕밖에 없다. 그를 다루기 위해 4, 5세기 무렵 일본 공부를 치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치의 파오차이 표기 논란을 비롯해 한복 등 중국의 동북공정이 거세다. 2011년 고구려 1권을 처음 펴낸 김 작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위기감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그건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니다.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문화다. 그래서 한국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한국과 중국의 뿌리가 같다고 주장하는 거다. 우리의 근원, 조상을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동북공정에 돈을 엄청 써서 고구려 유적같은 걸 전부 중국이 가져가고 있다. 이 사태가 너무 심각하네 현실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그래서 ‘고구려’ 집필에 혼신의 힘을 쏟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사회가 먹고 사는 바빠 때 중국이 다 쓸어들고 있다. 한복, 김치가 자기 꺼라고 하지 않느냐”며 “아주 이상하다. 완력이 강한 저능아 느낌인데, 우리가 역사를 지키지 않으면 정체성을 몽땅 빼앗길 수 있다. 지금 굉장히 큰 전쟁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구려”는 최근 영화, 시즌제 드라마 제작 소식으로 화제가 됐다. 아이오케이(IOK)와 영상물 제작에 대한 관련 계약을 완료했으며, 1000억여원의 제작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김 작가는 “지금 시대는 글에서 그림, 영상으로 많이 넘어간 상황”이라며 “아이오케이 오너를 만났는데 굉장히 민족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

다.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물론 드라마로 돈도 벌 수 있겠지만 그만큼 제작비를 들인다는 건 돈은 다른 데서 벌더라도 드라마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내가 쓴 고구려의 정신, 이런 걸 잘 구현해줄 것 같아 기대가 크다.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 전문가의 영역이 있었지만 고구려 정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율하고 있다.”

출연진으로 마음에 둔 배우가 있느냐고 묻자 “조인성이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처음 등장하는 을불, 미천왕을 맡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는 작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는 내년 대선에 대해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다”며 “여야 유력 후보인 윤석열, 이재명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네거티브로 선거전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되든 상처받은 영광이 될 것이다. 정치권이 이대로 가선 안 된다”며 “이제는 우리 사회의 격에 맞는 선량하고 국민이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후보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꼽았다. “그 사람은 이미 국회나 청문회에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정치판을 뒤집을 수 있는 인품을 가진 후보 같다. 그런 사람도 정치권 안으로 들어와 이제까지 후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절실하다.”



차기작에 대해 묻자 고구려 외에 또 다른 인생 역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생의 숙원작으로 두 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구려, 고대사 정체성을 찾는 작품이고 하나는 현대사 이야기죠. 젊은 사람들이 존

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물을 너무 옛날이 아닌 현대사에서 찾아야 합니다.

현대 인물 중 온 국민이 좋아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차지연·임백천... 코로나 확진 연예계 또 비상



연어은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또다시 연예계가 긴장대 휩싸였다. 배우 차지연은 4일 오전 소속사를 통해 코로나19 양성 반응 통보를 받

았다고 밝혔다. 차지연은 뮤지컬 ‘레드북’을 공연하고 있으며 뮤지컬 ‘광화문연가’와 드라마 ‘블랙의 신부’ 준비 중이었다.

이에 따라 차지연의 ‘레드북’ 공연 출연은 취소됐으며, ‘광화문연가’의 경우 앞서 ‘인피니트’ 성규의 확진에 이어 또다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정 조율이 불가피해졌다.

‘광화문연가’ 제작사인 샘컴퍼니는 이날 “출연진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오늘 예정됐던 온라인 제작발표회는 취소됐다”고 알렸다.

‘블랙의 신부’ 역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예정이다.

앞서 방송인 임백천 역시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KBS 2라디오 ‘임백천의 백 뮤지’ 제작진과 일부 게스트는 검사를 받았으며, 진행은 임백천을 대신해 2주간 가수 임지훈이 맡기로 했다.

방탄소년단 ‘DNA’ 뮤비 첫 13억뷰 돌파



가상 현실 넘나드는 듯한 연출·세련된 퍼포먼스 ‘호평’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DNA’ 뮤직비디오가 3일 0시계 유튜브에서 조회 수 13억 회를 돌파했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밝혔다.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가 13억 뷰를 달성한 것은 ‘DNA’가 처음이다. 지난 2월 12억 뷰를 넘긴 지 5개월 만이다.

2017년 9월 발매된 앨범 ‘러브 유어셀프 승려’ 타이틀곡인 ‘DNA’는 ‘우리들은 태초부터 운명적으로 얽혀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다.

뮤직비디오는 가상 현실과 우주 공간을 넘나드는 듯한 연출과 세련된 퍼포먼스로 호평받았다. 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히트곡인 ‘불타오르네’는 전날 오후 10시계 유튜브 조회수 7억 회를 넘어섰다. ‘불타오르네’는 2016년 5월 발매된 앨범 ‘화양연화 영 포에버’ 타이틀곡으로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돋보인다. 방탄소년단의 4집 1집 10주 기념 앨범인 ‘DNA’는 총 33편이다.

뉴시스

‘빨강 구두’ 반효정·선우재덕·최영완, 명품조연 라인업

오늘 오후 7시50분 첫방송

배우 반효정, 선우재덕, 최영완이 KBS 2TV 새 저녁 일일드라마 ‘빨강 구두’에 합류, 극의 중심축에 힘을 보탠다.

‘빨강 구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아버지와 병든 남동생을 외면한 채 사랑과 욕망을 찾아 떠난 비정한 엄마에게 복수하기 위해 멈출 수 없는 욕망의 굴레에 빠져든 딸의 이야기를 담는다.

최명길, 소이현, 박윤재가 주인공을 맡았으며 반효정, 선우재덕, 최영완이 가세했다.

반효정은 지하 대부업계의 소문난 큰 손이자 윤기식(박윤재 분), 윤현석(신정윤) 형제의 할머니인 최숙자 역을 맡았다. 평생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거대한 가업을 일구었음 만큼 냉철



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다.

선우재덕은 과거 민희경(최명길)을 배신한 애인이자 현재의 남편 권혁상 역으로 분해 냉혹한 집념을 가진 사업가의 야망을 펼친다.

최영완은 권혁상의 동생이자 ‘로라’

의 푹 부러진 흥보이사 권수연으로 변신, 갑작스럽게 올케가 된 민희경과 사사건건 부딪친다.

‘미스 몬테크리스토’ 후속으로 5일 오후 7시50분 처음 방송된다.

뉴시스

송강호, 칸영화제 참석...조용히 출국

심사위원·비상선언 초청

제74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에 위촉된 배우 송강호가 영화제 참석을 위해 3일 출국했다.

송강호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해 칸으로 향했다.

앞서 칸영화제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올해 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 9명을 발표했다. 송강호를 비롯해 미국 배우 메기 질렌홀, 프랑스 배우 멜라니 로랑, 프랑스-세네갈 감독 마티 디오프 등이 포함됐다.

한국 영화인이 칸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1994년 신상옥 감독, 2009년 이창동 감독, 2014년 전도연 배우, 2017년 박찬욱 감독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다.

송강호는 2007년 이창동 감독의

‘밀양’으로 칸 영화제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당시 함께 출연한 전도연은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칸의 여왕’이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후 2009년 박찬욱 감독의 ‘박쥐’가 경쟁 부문에서 심사위원상을 제쳤고,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인연을 이어갔다.

이 밖에 2006년 봉준호 감독 ‘괴물’이 감독주간에, 2008년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 놈’이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바 있어, 이번이 무려 6번째 칸 초청이 된다.

올해는 비경쟁부문 초청자인 ‘비상선언’에도 출연해 칸 레드카펫을 밟는다.

세계 최대 영화 축제인 칸 영화제는 매년 5월 지중해를 끼고 있는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에서 열려왔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영화제가 취소됐고, 올해는 두 달 늦춰 6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